

엄홍섭 단편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소멸 양상 연구*

- 일제 말,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

조명기** · 이재봉***

차 례

- | | |
|-----------------------|---------------------|
| I. 서론 | III. 해방기 지식인의 소멸 양상 |
| II. 일제 말 지식인의 소멸 양상 | 1. 변함없는 현재와 연기된 미래 |
| 1. 지식인 부재와 계승자 양육 | 2. 지식인의 몰락 |
| 2. 지식인의 신념 고수와 자발적 소멸 | V. 결론 |

I. 서론

엄홍섭은 긴 시간에 걸쳐 대단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카프의 맹원으로 전형적인 카프 소설을 창작했던 엄홍섭은 카프 제명 후에는 동반자 작가로 분류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¹⁾ 대중소설, 지식인소설, 후

* 이 논문은 2005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강사, 제1저자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저자

1) 김기진, 『조선문학의 현재의 수준』, 『신동아』, 1934.1, 46쪽 참조. 반면, 장명득은

일담소설, 농민소설 등 폭넓은 성격의 작품을 생산하였다. 해방기는 물론이고 월북 이후에도 적지 않은 양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홍섭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하다. 한국 문학사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작을 생산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일겠지만, 1988년 해금 이후에야 그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월북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한설야, 박태원 등 몇몇 작가에 한정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²⁾

엄홍섭 소설 연구의 의의는 일부의 월북작가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양상을 풍부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정형화된 관점에서 한국문학사를 다루지 않기 위해서는, 각 작가들이 지닌 특성, 변화상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³⁾ 이때, 특정 작가의 세계 인식 태도, 대응 태도가 다른 작가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독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동원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어 지식인소설은 훌륭한 증거점 역할을 한다. 지식인소설은 당대에 대한 나름의 정직한 보고서인 동시에 작가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홍섭의 지식인소설은 1930년대 동반자 작가의 지식인소설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⁴⁾ 카프 작가들은 자신의 과거 신념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엄홍섭 외의 동반자 작가들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함으로써,⁵⁾ 폭력적인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다.

엄홍섭을 동반자 작가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장명덕, 『「군기(群旗)」사건과 엄홍섭의 초기 소설』,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8, 120쪽 참조.)

- 2) 장미경, 「엄홍섭 소설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1993, 1쪽 참조.
- 3) 김형봉, 「엄홍섭 소설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7쪽 참조.
- 4) 박진숙, 「엄홍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08쪽 참조.
- 5) 동반자 작가의 지식인소설에 대해서는, 조명기, 「『金講師와 T教授에 내재된 지식인의 욕망 연구』, 『어문학』 83집, 어문학회, 2004 ; 조명기, 「이효석 소설의 변화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2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조명기, 「1930년대 말 지식인의 현실 적응 양상 연구-채만식의 「少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그러나 엄홍섭은 카프와 동반자 작가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카프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카프로 복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카프 작가들처럼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신념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동반자 작가들처럼 작품을 통해 자신의 소부르주아성을 가혹한 폭력의 불가피한 결과로 합리화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엄홍섭의 지식인 소설을 연구하는 작업은, 지식인소설의 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문학사가 간과해왔던 세계 인식 태도와 대응 태도를 조망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고는, 엄홍섭의 지식인소설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식인소설을 두 시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 초기 작품으로는, 카프 제명 전후기와 카프의 실질적 해체에 발표된 작품인 <꿈과 現實>, <絶縁>, <방울 속의 참 消息>, <淪落女>를 들 수 있다. 작가는 이 소설들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의식과 개인적·일상적 안위·행복의 공존 추구→개인적·일상적 안위·행복에 대한 욕망의 탈각과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의식 강조라는 변화를 과시하고 강조한다. 동시에 작가는 그 이면에 숨어, 지식인의 자의식이 지닌 순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개인적·일상적 안위·행복에 대한 욕망을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성취한다.⁶⁾ 반면, 일제 말과 해방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신념의 유지·계승 노력, 그리고 지식인 소멸과 좌절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엄홍섭의 지식인 소설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련의 노력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본고는, 일제 말에 발표된 작품인 <길>(『여성』, 1937.1), <아버지消息>(『여성』, 1938.1-2), <敗北아인敗北>(『사해공론』, 1938.8), <조고만快感>(『여성』, 1940.6), 해방기 작품인 <自尊心>(『백민』,

35집, 한국문화회, 2003 등을 참고할 것.

6) 조명기·이재봉, 『엄홍섭 초기 지식인 소설 연구』, 『어문학』 92집, 어문학회, 2006.

1947.11), <봄오기前>(『신세계』, 1948.5)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 작품들을 통해, 일제 말과 해방기의 성격, 세계와 지식인의 관계, 그리고 지식인의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내적 구조 분석과 담론 분석을 병행한다.

II. 일제 말 지식인의 소멸 양상

1. 지식인 부재와 계승자 양육

<길>과 <아버지消息>의 인물 구조는 유사하다. 이 두 작품에는 어린 딸과 젊은 여인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등장한다. 젊은 여인의 남편은 이미 죽었거나 실종 상태에서 죽는다. 작품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남편이 유일한 지식인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지식인이 아니다.

<길>의 “소같이 억세던”⁷⁾ 남편은 “봄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에” 나오지만, 투옥 기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어 “허수아비와 같은 몸집을 가진 병신”(364쪽)이 되어 있다. “그놈의 책들 때문에 난리두 하두 겪어서(364쪽)”라는 친정어머니의 발언과 “남편을 죽인 것은”(373쪽)이라며 이를 악무는 정애의 모습에서, 그가 투옥된 이유 그리고 투옥 이후 취했을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책은 국가 권력기구의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는 이 책을 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다. 나아가 투옥 후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국가 권력기구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병신이 된 후에야 출옥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8살 아이가 화자로 등장하는 <아버지消息>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다. 중학교 교사인 아버지는 어느날 갑자기 실종되고, 국가

7) 엄홍섭, <길>, 『韓國解禁文學全集』 7, 삼성출판사, 1988, 364쪽. <길>을 제외한 모든 텍스트는 엄홍섭, 『韓國近代短篇小說大系』 15, 태학사, 1998에서 인용함. 이하 인용면수만 기입.

기관원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책을 압수해간다. ‘나’의 집을 수시로 감시하던 그들은 아버지 실종 후 4, 5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의 사망 기사가 실린 신문을 ‘나’의 집에 전해준다. <길>과 <아버지消息>의 남편, 아버지는 죽음을 무릅쓴 지조 있는 비판적 지식인인 셈이다. 그러나 작품 진행상 현재의 세계에 지식인(남편, 아버지)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인의 부재 상황에서 출발하는 두 소설은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대신에 지식인의 계승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 지식인을 계승할 인물은 어린 자식이다.

정애는 고개를 들어 어린애가 혹시 죽은 남편을 닮았는지 어린애 쪽을 보려 했다.(371쪽)

자기의 행복은 오직 가버린 남편의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에 빛나리라 생각되었다. / 정애는 옆에서 잠들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스프르 내려 훑는다. / “어서 커서 네 애비의 못 이룬 뜻을 이어야지…….”(373쪽)

<길>은 유복자를 출산하는 장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애는 신생아인 유복자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려 한다. 아이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애비의 못 이룬 뜻”을 이어야 하는 계승자이다. 부재하는 지식인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를 통해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길>의 후속작 정도에 해당하는 <아버지消息>에는 8살인 ‘나’와 어머니, 할머니, 선생님이 등장한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 부재 상황이다. 어머니는 “애비가 없어 그런지” “버릇이없구 어린양만 느러간다”(408쪽)며 선생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부탁하며, 선생님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부재하는 것을 놀리지 말라고 훈계한다. ‘내’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족구두, 흰 운동화, 검정 치마와 남빛 저고리 등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부재 때문인데, ‘나’는 “언

제나 심심하면” 버릇처럼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오우?”(410쪽) 하고 묻는다. 아버지의 귀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귀환을 희망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데, 아버지의 귀환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일 귀하게역이는 책”(413쪽)을 간직하고 있는데 “부지런이 공부해서”(414쪽) ‘내’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기사를 대했을 때도, 자신은 조금도 서럽지 않다며 “내머리를 짝-ㄱ 짝-ㄱ 씨다듬”(416쪽)는다. ‘나’는 지식인 아버지를 계승해야 할 인물인 것이다. <길>의 갓난아이와 <아버지消息>의 아이는 지식인 아버지의 계승자이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아이가 지식인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⁸⁾ 아이는 신생아이거나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기에 조력자들은 아이가 지식인의 훌륭한 계승자가 되기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길>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정애이다. 정애는 계승자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아이는 “애비의 못 이룬 뜻”을 이어야 할 인물이며, 정애 자신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어린아이의 어머니”일 뿐이다. 따라서 정애는 “내겐 벌써 청춘도 없다.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374쪽)고 중얼거리는데, 그 운명이란 남편이 자신에게 한 부탁 “청춘까지 희생하더라도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충실”(373쪽)하는 것이다. 유복자 출산은 지식인의 유일한 계승자 탄생을 의미하며, 어머니는 계승자를 조련하는 희생적인 후원자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아버지消息>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조력자가 추가된다. 선생님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부분적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는 ‘내’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귀여워하며, 어머니에게 구두나 양복을 사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나’를 타이르면서 자기가 “이답에 사주”(413쪽)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8) 최경옥, 『엄홍섭 소설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9, 70쪽 참조.

그러나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를 지식인의 계승자로 양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아버지의 유품인 책이다.

초저녁에 읽다가 잠이 들어 떨어뜨렸는지 베벨의 《부인론》이 펍 하고 한 손에 걸리었다. / 걸표지가 저절로 넘겨지자 남편의 사인이 선뜻 눈에 띈다. / “애, 그런 책은 또 왜 보니…… 느 남편 읽든 책 아니야?”(<길>, 364쪽)

엄마는 언제나 잠겨두었던 장문을 열고 아버지는 책을 있을대로 끄집어 내다가 책상우에 채곡채곡 싸놓으세요.(〈아버지消息〉, 416쪽)

엄마는 아버지가 제일 귀하게역이는 책만을 뒤걸 향아리속에다 넣어 두었다고 그래요. 그때 향아리속에 들어있든 책들이지금 엄마 장속에 들은 책들이래요. (중략) / 『어서 부지른이 공부해서 네가다 가지렴으나, 그때까진 내장속에 너들테니……』(413-414쪽)

<길>의 정애는 출산 직전 남편의 책을 읽는다. 남편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책은 남편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유품인 책을 읽음으로써, 정애는 “모든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박차고 당신의 청춘까지 희생하고라도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충실”(373쪽)이라는 남편의 유언을 기억해내고 아이를 남편의 계승자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나아가 “빛 없는 세상에서 허덕이는 여자가 오직 자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373쪽) 공동체 의식 또한 획득하게 된다. 결국, 무지 상태에 있던 정애는 지식인의 유품인 책을 통해 각성의 순간을 맞게 되고⁹⁾ 지식인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책은 정애를 지식인으로 변환시키지는 못하지만, 지식인 계승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아버지消息〉은 책의 본질적인 성격, 어머니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첫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때 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책을 제사

9) 이봉범, 『엄홍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52쪽 참조.

상 위에 올려놓는다. 책은 지식인인 아버지의 신념과 굳건한 지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책을 보관하였다가 ‘내’가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책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나’는 어머니가 전달해준 아버지의 책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식인의 확고한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식인의 책은, 아내를 지식인 양육을 위한 희생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아이를 진정한 지식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궁극적인 자양분으로 기능한다.

지식인이던 남편(아버지)은 이미 과거 속으로 소멸된 상태이며, 남편(아버지)의 계승자인 아이는 아직 미숙한 상태인 미래형이다. 아내(어머니)는 과거의 지식인과 미래의 지식인을 연결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지식인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는 책이며, 아내(어머니)는 책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매개자로 기능한다. 책과 아내(어머니)를 통해 미래의 지식인은 궁극적 지향점인 과거의 지식인과 연결되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결국, 엄홍섭이 파악한 당대는, 일제의 탄압과 말살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비판적 지식인은 사라졌고 미래의 비판적 지식인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대이다. 따라서 극복의 대상인 현재¹⁰⁾ 해야 할 것은, 일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 아니라 미래의 지식인을 위해 과거의 지식인을 기억하고 과거의 비판적 정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엄홍섭은 일제말의 암흑기를 미래를 위한 희생의 시간, 잠복과 보존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엄홍섭은, 지식과 신념의 보존 혹은 미래 지식인에 대한 기대 또한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출산 과정과 출산 직후의 상황만으로 이루어진 <길>은 난산을 통해 계승의 어려움을 형상화

10)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 작가」, 『연세어문학』 20,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70쪽 참조.

한다. 남편이 이미 죽었기에 출산 중인 아이는 유일한 계승자이다. 그러나 “몸이 워낙 튼튼치 못한”(366쪽) 정애는 출산 도중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는다. 산파는 난산의 정도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 모가지가 아이 문에 걸려서 오래 쉬면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도 살기 어려워요-”(370쪽)라는 말로 집약한다. 출산 후에도 아이는 계승자로서의 위용은커녕 허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조금도 울지” 않고 “살빛조차 새파랗”(379쪽)기에 “어린아이 코 밑에 자기의 귀를 가만히 기울”(371쪽)여 숨소리를 확인해야 할 지경이다.

지식인 계승이 어려운 이유는 계승자 자신의 한계, 즉 미성숙에서 비롯된다. 이는 계승자의 한계로 인해 계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의 언젠가로 지연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계승의 기약없음 나아가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아이가 과거의 지식인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길>의 정애는 이 시간 동안 남편의 책을 간직하여야 한다. 정애는 “남편의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길을 걸어” 나가리라 결심하지만, “자기의 일생은 끝까지 빛 없는 암흑 속에서 허덕이다 말 것인가? 생각되때 세상이 허무하고 자기 한몸이 버러지처럼 내리켜”(373쪽) 보이기도 한다. 정애는 미래의 지식인인 빛을 향해 걸어가려 하지만, 이 지식인은 신생아에 불과하기에 정애는 계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계승이 연기될수록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아버지消息>은 계승의 연기·지연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버지는 네가 훨씬 더 커서 공부를 더 잘해야 오신다, 그동안에 엄마허구 살자! 응?」(<아버지消息>, 410쪽)

「엄마가 돈이없는데 넌 작구 졸르면 엄마 울지? 내 이답에 사주마! 네가 공부잘하면!」(413쪽)

「영재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다. 지금 저-먼데 가서서 돈을 버시는데 도라오시기만하면 우리학교에도 기부를 해주실 어른이야.」(412쪽)

「네까짓게 아버지 책을 보면 필아라? 이답에 고등과를졸업해두 불등 말등한 어려운책이란다. 어서 부즈런이 공부해서 네가다 가지렴으나, 그 때까진 내장속에 너들테니……」(414쪽)

‘내’가 “훨신 더 커서 공부를 더 잘해야”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완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 성숙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식인이 복귀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나’는 어머니에게 가죽구두, 흰 운동화, 검정 치마와 남빛 저고리 등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 이 때 선생님은 이것들을 자신이 사주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하나는 “이답”이라는 연기이며 또 하나는 “네가 공부잘하면”이라는 성숙이다. 가죽구두등은 ‘나’의 미성숙을 증명하는 징표인 셈이다. 어머니 또한 ‘나’의 미성숙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아버지의 책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아버지의 책은 ‘나’를 비판적 지식인으로 이끌어줄 핵심적인 매개체이지만 “고등과를졸업해두 불등말등한 어려운 책”이다. ‘내’가 “부즈런이 공부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책 전 달은 지연된다. 아버지, 가죽구두·흰 운동화·검정 치마, 책 등,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언제나 미래의 일로 연기·지연된다. 물론 이는 ‘나’의 정신적 미성숙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한없는 기다림·희생의 시간, 불안·궁핍의 시간이다.

동시에, 작가는 <아버지消息>에서 아이의 성장을 암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기도 한다. ‘나’는 어느날 밤에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산책갔다가 아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 도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 “엄마는 나를 어린애처럼 등에 업고”(410쪽) 산을 내려온다. 그러나 작품 말미에서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아버지의 죽음을 신문에서 확인한 후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다가 눈물을 흘린다. 이 때, ‘나’는 “내 웃고름으로 엄마의 눈물을”(417쪽) 닦아주며 위로한다. 아버지의 소멸을 확인한 순간 ‘나’는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는 대상에서 위로하고 보호하는 주체로 탈바꿈한다. 물론 아버지의 책을 이해할 만큼의 성숙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신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로 볼 때 작가는, 불확실한 미래로 지연된 지식인 계승에 대해 기대섞인 희망을 지니고 있다.

2. 지식인의 신념 고수와 자발적 소멸

<길>, <아버지消息>은 표면적으로는 현재와 아내의 가치·역할을 강조하지만,¹¹⁾ 사실상 현재와 아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두 지식인이다. 두 소설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두 지식인에서 나온다. 반면,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지식인 소멸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세계의 폭력과 지식인의 신념을 보여준다.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의 공통적인 기본 구조는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의 대립 구조다. <敗北아인敗北>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돈을모아야 이세상은 살아간다”는 것을 진리로 삼고 있는 “충실한 장사치”(572쪽)인 ‘나’와 “수만명독자를”(572쪽) 가졌지만 “다작을해도 원고료가 헐하기 때문에 안해와 어린 자식을 굶주리게”(573쪽) 하는 소설가 S이다. ‘나’는 경제적 “안정”(573쪽)을 성취하지만 무가치한 삶에 애달파 하며, S는 작가적 지위는 성취했지만 “경제적으로 허망”(573쪽)하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완벽히 대조적이다. 두 인물의 대조는 작품 곳곳에서 반복·증폭된다. ‘나’와 S는 우연히 길에서 두 번 만나게 된다. 8년 전의 첫 만남에서, ‘나’는 “그의 손목을 힘껏” 쥘 만큼 강건하고 반가운데 반해, “그의손목은 너무도 싸-늘하고 약”(568쪽)하며 그는 “면구스러운것처럼 어색한표정”(569쪽)을 짓는다. 그가 ‘나’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도 두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나’는 “룸펜이된

11) 이호규, 『엄홍섭론』, 연세대 석사논문, 1991, 60쪽 참조.

그가 나를차저오면 결국 경제적으로 내게이익될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그를기다리지않았것만”(569쪽) 그가 나타나자 기다렸다고 말하며 자기가 생각해도 “교활하기짜이없는 웃음”(570쪽)을 짓는다. 반면, S는 “너무도 청백할만큼” 기개가 높으며, ‘내’가 용자를 거절할 때에도 “혼연한태도로” “빙그레웃으며 악수를”(570쪽) 나눈다. 8년 후 ‘나’는 “은행을 향하여 빨리것고” 있다가 “힘없이거러오는 얼굴빛이 창백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회복될 수 없는 중한병”에 걸린 것 같지만 “맑은 눈”(575쪽)을 지니고 있다. “맑은눈”의 정체는 “나로하여곰 수만은독자 대중에게 죄를 짓게한”(576쪽)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작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지식인의 신념이다. 작품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S는 더욱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지만 지식인의 신념은 더욱 빛나게 된다. 결국, <敗北아인敗北>는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나’와 지식인의 신념·자 의식을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S의 대립 구도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¹²⁾

<敗北아인敗北>의 S가 1인칭 주인공으로 등장한 듯한 <조고만快感>은 작가로서 기대하는 성취·보람을 주로 다룬다. ‘나’는 작가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경제적 안정은 전혀 누리지 못한다. ‘나’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이며, “내 살림의 빈약함과 내 서제의 쓸쓸 함을”(636쪽)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경제적 안정을 포기한 상태에서 <조고만快感>은 작가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취·보람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작품은 “뜨렷한 타입으로 나타나지를 않는”(634-635쪽) 애독자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작업, 즉 이상적 독자 찾기의 산물이다. 이상적 독자 찾기에 대한 ‘나’의 집념은, 작품 앞부분에서 ‘내’가 외출한 사이에 찾아온 젊은 여인에 대해 ‘내’가 아내에게 집요하게 묻는 장면, 귀가할 때마다 아내에게 독자가 다시 방문하였는지 묻는 장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급기야 ‘나’는 그 독자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독자를 길에서 찾아내

12) 박선에, 『엄홍섭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1, 77-78쪽 참조.

고자 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상적 독자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여성 독자의 삶 또한 경제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작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여성 독자는 <길>의 정애, <아버지消息>의 어머니를 모방하여 “기생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한아이의 충실한 어머니가 되기”(641쪽)로 결심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내’가 바라는 이상적 독자는 지식인의 신념을 모방하여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인 셈이다. 지식인 혹은 지식인에 영향받아 그를 모방하는 인물은 지식인으로서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누리지 못하고, 두 요소의 극단적 대립 위에서 전자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지식인으로서의 신념·자의식과 생활인으로서의 경제적 안정 욕망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구도 위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 강조가 아니라 극단적 대립 구도의 파괴, 혹은 대립 이전의 세계라는 점이다.

그와나와는 이상하게도 일학년부터 사학년까지 한책상에안저서 정답게 공부했다. / 그는 언제나 나보다 성적이조았다. 그는 그우리반에서는 누구보다도 작문을 잘지었기때문에 선생의 칭찬을 밧었다. / 그러나 산술만은 나만콧 못했다. 작문을 잘지을줄모르는 작문시간에는 으레 그의 엽구리를 꺾꺾찢너 그에게 차작을바더서는 내가다시 내글씨로써서 내가 지은것처럼 감꺾같이 선생을 속이고 내여노았다. / 그갑뎡으로 나는 산술시간에 암산(暗算)을할 나 주산(珠算)을할때는 눈을꺾꺾꺾꺾하고 선생물래 내허벅지를 꺾꺾찢르는 그에게 답(答)을 열른아르켜줄때가 만었다. 말하자면 그는 나를 도우고 나는 그를도와가며 학괴시힘때같은때는 좀 창꺾한이야기갓지만 선생물래 교묘하게 간닝을해가지고 그도 나도 둘이다 훌륭한 우등생이 되엇었다.(<敗北아인敗北>, 567쪽)

<敗北아인敗北>는 ‘나’와 S의 극단적인 대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대

립 이전의 시기는 협력·조화의 시기이다. “나는 나요 그는그다, 나는장사 치 그는소설가”(574쪽)로 분리·대조되기 이전, 작문을 잘 하는 그와 산수를 잘 하는 ‘나’는 서로를 돕는다. 그들은 “중학을졸업할때까지도 서로 이웃집에서 살며 친이지내 든” “죽마고우”(567쪽)였다. 이 시기의 ‘나’는 “일전한푼에도 그야말로 울”면서도 “돈을모으면 무엇을 할까” 하는 “내면적모순”(573쪽)에 괴로워 할 필요도 없으며, 이 시기의 S는 “생활에 쪼들려” 소설을 쓴 자신을 “독자에게 죄를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당분간 “작품을 발표치않겠”(576쪽)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다. 학창시절은 만족과 행복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은 “훌륭한 우등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들 모두 “훌륭한 우등생”이 된 이유는, 산수·경제적 안정과 작문·지식인의 신념 혹은 자의식이 배타적 선택항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계에 있었던 데 있다.

분리·대립 이후의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경제적 안락은 “마음의한구통이가 문어져버린것같은 상처의 비애”(573쪽)를 동반하며,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은 경제적 “허망”을 필연적으로 초래했기 때문이다. ‘나’와 S는 두 요소가 분리·대립하게 된 원인을 “현실”에서 찾는다. ‘나’는 “현실의 악희(惡戲)”, “현실의 조롱”(574쪽)을 그 원인으로 들며, S 또한 “현실은 나를 패북자로 만들었네”(577쪽)라고 설명한다. “여태껏 발표한작품이 전부내가 쓰고싶어서 쓴 것은 하나도없네. 나는 내가쓰고싶은 소설을못쓰고 발표하고싶은 소설을 발표하지못한 패북자일세”(576쪽)라는 S의 말을 통해 “현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다. “현실”은 작가가 처한 ‘여러 장애’로 귀착되는데, “현실”의 정체는 작품 첫머리에 반복적,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작품을 마음대로 쓰지못한다는것— 즉 자기가 쓰고싶은 작품을 쓸수 없다는것. 또한 작품을쓴다 하더라도 쓰는대로 발표할만한 발표지가없다는것 또한 발표가된다 손치더라도 몇푼안되는 원고료로써는 도저히 생활해나갈 수 없는 조선의현실”(566-567쪽)

작가가 처한 여러 장애란, 작품 내용에 대한 외부의 규제, 발표 매체의 부족, 경제적 고통을 가리킨다. S는 이런 장애가 저널리즘의 폭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저널리즘은 S에게 지식인의 신념과는 무관한 혹은 배치되는 글을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널리즘 현실은 지식인의 신념과 경제적 토대 모두를 붕괴시킬 뿐이다.

따라서, S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 회복 뿐인데, 그가 3, 4년 동안 작품 발표를 거부한 것은 신념·자의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자 저널리즘에 대한 나름의 저항인 셈이다.¹³⁾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항이 작가의 소멸과 직결된다는 데에 있다. 작품 미발표라는 형식의 저항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나 의견도 전달하는 것을 포기한 방식이기에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저항에 머물 수밖에 없다. 독자는 작품 미발표를 저항이 아니라 “모를일”(575쪽)로 받아들일 뿐이다. 비록 작품 미발표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 고수·회복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지식인의 사회적 기능과 존재 가치는 상실된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지식인인 셈이다.

S는 “아조 소멸만 된다면 오히려 한없이 깃부겠네만”(577쪽)이라며 자신의 소멸을 바라는 태도를 취한다. 현재의 세계는 지식인을 원하지 않는데, 지식인이 자신의 신념·자의식을 고수·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소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태도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당위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다. 지식인의 자발적 소멸은 사실상 현실 세계의 폭력에 말미암은 것으로, 지식인이 부활, 회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위적 세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의 회귀는 당위적 세계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당위적 세계는 과거의 세계, 즉 ‘나’와 S의 조화·협력이 가능한 세계, 경제적 안정과 지식인의 신념이 균형을 이룬 시대이다. S는 ‘나’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이 공간의 회복을 시도해보지만, ‘나’는 “웬일

13) 정희준, 『엄홍섭 소설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1995, 56쪽 참조.

인지 용기가나지안”(570쪽)아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후 ‘나’는 “약간의 물질을 보조해줌으로써 전일의 잘못을 취소”해 볼까도 생각하지만, “내 경박한심리를 소설가인 S군은 응당몰을리 없을것이며 도로혀 내가 그를 차저간다는것은 불자연한 행동이며 그의기분을 더불쾌하게하는것밖에 별다른의의가 없는것임을 절실히”(574쪽)닫게 된다. 현재는 이상적 공간이 실재할 수 없는 공간이며, 비록 두 인물 모두 당위적 세계를 원하더라도 두 인물의 조화·화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듭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 세계에서는 두 요소의 조화가 불가능하기에 S는 “파리한뒷모양”으로 “쓸쓸”(577쪽)히 작품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다. ‘敗北아인敗北’라는 제목처럼 지식인은 자신의 신념·자의식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 소멸을 선택한 셈이다. 지식인의 부활·복귀는 당위적 세계가 실현될 때까지 지연·연기될 수밖에 없다.

<조고만快感>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에 영향받고 그를 모방하는 인물을 이상적 독자의 전형으로 설명하는데 바쳐져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허무적인 지식인¹⁴⁾의 불안을 토대로 한다. 자신의 작품 중 “쓰고싶어서 쓴것”과 “땀뻘안되는 원고료”를 위해 쓴 것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소설 <조고만快感>에 내재되어 있다. 이상적 독자로 등장하는 여성은 ‘나’의 작품 중 <구원초>와 <길>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구원초>와 <길>은 엄홍섭의 실제 작품명이기도 하거니와, <조고만快感>에 간략히 언급된 <구원초>와 <길>의 내용은 실제 작품의 내용 그대로이다. 이 당시 엄홍섭은 <행복>, <봉화>, <인생사막>과 같은 통속적인 대중소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조고만快感>에서 굳이 <구원초>와 <길>을 거론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중소설을 독자의 기호에 부합한 상업적·오락적 목적의 소설¹⁵⁾이라 규정한다면, 이 대중소설이야말로 저널리즘에 적합한 소설일 것이

14) 조남현, 『현대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3, 14쪽.

15) 구인환, 『韓國文學 그 樣相과 指標』, 삼영사, 1982, 163-165쪽 참조;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4, 7쪽 참조.

다.¹⁶⁾ 당시 엄홍섭은 작가 신념을 형상화한 작품과 저널리즘의 기호에 충실한 작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상적 독자를 통해 전자를 “쓰고싶어서 쓴” 소설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작품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엄홍섭의 이런 행위는 다음 두 가지를 암시한다. 하나는 현 세계의 실상에 대한 인식으로, 지금의 세계는 지식인의 신념과 경제적 안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세계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배타적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인해 작가는 두 부류의 작품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전략적 창작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敗北아인敗北>와 마찬가지로 <조고만快感> 역시 현 세계를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이 공존할 수 없는 세계, 나아가 배타적 관계를 형성한 세계로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이상적·당위적 세계의 성격과 현 세계의 실상, 그리고 현 세계에 대한 지식인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지식인은 자신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이 조화·협력하는 공간을 지향하지만, 이 공간은 과거의 공간 즉 소멸된 공간이다. 현재는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이 분리되어 이원적으로 대립된 공간이며, 지식인이 자의식·신념을 고수·유지하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소멸해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발성은 현 세계의 폭력이 개입된 자발성이다. 지식인의 부활은, 이상적·당위적 세계가 회복될 때까지, 다시 말해 <길>과 <아버지消息>의 아이가 성장하여 지식인으로 변모하여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연기된다.

16) 박선애, 『엄홍섭 장편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창간호,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4.8, 309쪽 참조.

Ⅲ. 해방기 지식인의 소멸 양상

1. 변함없는 현재와 연기된 미래

해방은, 지식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기 즉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야 했다. <길>, <아버지消息>의 아내(어머니)는 미래(해방)가 현재를 보상해 줄 것으로 믿으며 자신을 희생했지만, 해방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주요 성격으로 하는 당위적 세계를 복원시키지 못했다.

짧은 콩트에 해당하는 <自尊心>은, 해방 후의 한반도와 일제 말기의 한반도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보여준다. <自尊心>은 <敗北아인敗北>의 인물 구조, 서사 구조를 모방하고 있다. <敗北아인敗北>의 ‘나’와 S의 관계는 <自尊心>에서 영배와 종수의 관계로 이어진다. 영배는 “번즈르르한 고급순모(純毛)양복에 새모자, 새구두로 말쑥하게채린 신사”이지만, 종수는 “그반대로 때국이 조르르 흐르는 다혜진 양복에 군데군데 기워신은 헐어빠진 구두끝이며 험수룩한 모습”(744쪽)의 “혁명투사”(745쪽)이다. 일제 시대에 ‘식민지노예교육반대’를 주장하다가 3년 동안 투옥되었고 해방 후에는 노동조합사건으로 1년간 투옥되었던 종수는 여전히 지식인의 신념을 고수·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敗北아인敗北>의 ‘나’와 S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들의 극단적인 대조를 확인하듯, <自尊心>의 영배와 종수 또한 길에서 우연히 만나 조화·협력의 불가능을 확인한다. 종수는 “자기의 옷주제가 영배에게 비하야 너무 꼴사나웁스므로 벌떡이러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며, 영배가 넣어주는 “지전뭉텅이를” “정색을 하고”(745쪽) 돌려준다. <自尊心>은 <敗北아인敗北>의 인물 구조와 서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해방기는 일제 말의 연장이며 반복임을 암시한다. 엄홍섭이 이해한 해방기 정확히 미군정기는 일제 말과 별 다를 바 없는 시대이다.

「독립되는걸 무서워하고 겁이 나서 방해하는 자들이 만인데 좀처럼 되겠나……」 / (중략) / 「천만에 말일세. 독립이 되면 일제시대에 지은 죄가 들어날터니깐 겁을 먹는놈, 또 八·一五이후 혼란한 틈을타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고있는 모리배놈, 제 재산, 토지들을 정부에 빼앗길까봐 겁내는놈……」(745쪽)

이 작품은, 한반도는 일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독립된 통일 정부를 만들지 못했기에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위 인용문은 정부를 세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인데, 이에 따르면 이기적인 물욕만을 지닌 사람들이 정부 수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물욕은 당위적 세계의 도래를 방해함으로써, 지식인 종수의 실천적 신념과 대척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敗北아인敗北>의 ‘내’가 돈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S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미군정기의 이기적인 물욕은 좀 더 교묘한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영배가 그 전형이다. 영배는 “좌익단체에도 기부했고 우익단체에도 기부”했고 자랑하면서, 자신은 “편당적인사람이”(744쪽)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악질모르배”는 아니지만, “모리배노릇”을 하여 “해방덕을 본”(744쪽) 인물이다. 다시 말해, 영배는 지식인의 정치적 신념을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존중하고 지식인의 실천적 신념을 후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식인의 신념과 물질적 풍요의 이상적인 조화를 증명하려 한다. 그는 두 요소의 조화·균형을 과시함으로써, 현 세계의 성격과 자신의 위치를 가장하려 한다. 그러나, 영배가 과시하고자 하는 조화·균형은 이기적인 물욕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회주의”(744쪽)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유일한 욕망은 이기적인 물욕이며, 현 세계와 자신의 성격을 두 요소의 조화·균형이라고 과시·강조하는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욕망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이다. 영배의 이같은 태도는 <敗北아인敗北>의 ‘나’의 태도보다 훨씬 교묘한 것

일에 분명하다.

<봄오기前>은 두 시기의 성격이 유사하게 된 이유와 그 결과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 작품 역시 대립적인 인물 구조에서 출발한다. 박선생은 “오십평생을 오로지 조선어의 발달과 보급을 위해서 일체의 폭압 정치와 싸워나려온 한글학자”이지만, “도대체 생활고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가정인으로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표본밖에는 될 게 없”(748쪽)은 인물이다. 반면, 박선생의 아내는 “바누질품도 팔고 콩나물장수도 하고해서 겨우겨우 어린아이들을 키워”(748쪽)내면서 “조선말 연구만 하고 있으면 누가 먹여살리”냐고 “남편에 대한 반박을”(749쪽) 하는 인물이다. 박선생은 “자기가 걸어나갈 텅텅한 길”만을 “묵묵 실천”(748쪽)하는 지식인으로, <敗北아인敗北>의 S와 <自尊心>의 종수와 동일한 유형이다. 아내는 <敗北아인敗北>의 ‘나’, <自尊心>의 영배와 유사한 사고를 지닌 인물로 물질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봄오기前>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일제시대와 해방기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우선 작품은 “해방이 되어 일제가 물러간 뒤에는 조금이라도 살림살이가 형편이 폐일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749-750쪽)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한다. 그리고, 박선생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박선생이 지닌 희망의 위치를 통해, 해방기는 일제시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형상화한다.

「나는 내가 내 일생을 바쳐 해나온 내 연구사업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싫소. 나는 조선이 독립되어 통일정부가 슬때 내 연구물을 그대로 몽땅 선물로 바칠 작정이요……」 / 「집안 사람은 다 굶어죽어도 나라일만하면 제일이란 말요?」 / 「나라일을 하다가 굶어죽는다면 텅텅한 죽엄일게요. 제 개인생활을 운택하게하고 제 배때기나 불리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러먹는 모리배 간상배 탐관오리들의 지나친 향락보다는 얼마나 성스럽고 결백한 일이요……」 / (중략) / 「그 쥐뿔두없는 주제에 아니꼽게 결백만 찾구 았었으면 누가 알려주나……」 / 부인은 속으로 비위가 거슬리었다.(750쪽)

해방기 박선생과 아내의 성격, 관계는 일제시대의 그것과 동일하다. 박선생은 여전히 물질적 안정을 도외시하는 지조있는 지식인이며, 아내는 여전히 물질적 안락에 최대의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이 작품의 두 인물이 일제시대에 그랬듯 그리고 <敗北아인敗北>의 ‘나’와 S가 그랬듯, 박선생과 아내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길>과 <아버지消息>에서 모든 희망이 미래로 연기되었듯, <봄오기前>의 박선생의 기대 또한 미래로 연기되고 있다. <봄오기前>의 해방기는 <길>과 <아버지消息>이 기다려온 미래이며, 박선생은 <길>과 <아버지消息>의 과거 지식인이 부활한 인물이다. 즉, 해방기는 과거의 지식인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해방기는 <길>과 <아버지消息>이 기다리던 미래가 실현된 시대가 아니었다. 박선생은 자신이 일생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정부에 기증하기를 바라지만, 그 희망은 “통일정부가 슬 때” 즉 또다시 미래로 연기된다. 현 세계는 “제 한몸만 잘 살고 제 한몸만 배가 부르면 그만”(750 쪽)이라는 이기적인 물욕만이 가득한 세계이다. 박선생과 아내의 조화·균형이 요원해 보이듯, 박선생의 희망 또한 현 세계에서 성취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국, <自尊心>과 <봄오기前>을 통해 볼 때, 엄홍섭이 이해한 해방기는 이기적인 물욕과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이 팽팽하게 대립된 시기, 일제시대의 연장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시기다. 해방기는 일제시대와 동일한 시간, 연기했던 희망이 붕괴된 시간, 그래서 희망을 한번 더 연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시간일 뿐이다. 나아가, 해방기는 이기적인 물욕과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이 조화를 이룬 시대로 교묘하게 가장하기에 더욱 절망적인 시대로 이해된다. 이 허위적인 가장을 통해 이기적인 물욕은 더욱 안전하고 은밀하게 성취된다.

2. 지식인의 몰락

<自尊心>과 <敗北아인敗北>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시점에서만큼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敗北아인敗北>는 장사치인 ‘내’가 지식인인 S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구나, ‘나’와 S는 몇 년에 걸쳐 겨우 두 번만 만나기 때문에, ‘나’는 S의 일상과 내면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 이에 따라 “내면적모순”을 느끼는 인물은 S가 아니라 ‘나’이다. 비록 S가 저널리즘과 작가와 독자의 관계, 작가의 책무 등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작가는 1인칭 시점을 택함으로써 두 요소의 대립을 외적 세계에 한정된 것으로 표현한다. 이에 지식인은 신념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고, 폭력적인 세계에 맞서 패배한 영웅이 된다. 1인칭 시점은 지식인의 단호한 결심과 확고한 실천만을 보여준다. 반면 <自尊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진행된다. 서술은 두 인물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지만, 심리 상태가 주로 드러나는 쪽은 종수다. 종수의 심리는 지식인의 불안을 담고 있다. 그는 영배와 자신의 옷차림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가 하면, “영배의 호의를 물리친 자기의 自尊心”을 “약간 후회”(745쪽)하기도 한다. 그는 물질적 이익과 지식인의 신념을 대립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후자에 전적으로 매진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요소의 대립은 외적 세계에서 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自尊心>은 두 요소의 갈등·대립을 외적 세계와 지식인의 대립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내적 갈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갈등·대립의 편재성, 지식인의 몰락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로 볼 때, 종수는 S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념이 후퇴한 지식인으로 비쳐진다.

급기야 작가는 <봄오기前>에 이르러 지식인의 몰락을 선언한다. 박선생에게 있어 한글 연구는 일제시대 동안 힘겹게 고수하고 간직해 온 신념 그 자체이다. 해방 후, “자기가 그동안 연구하고 수집해놓은 여러 가지 자료가 조선사람에게 필요한것 이라고 일반이 인정 해주는 때가 있

다면 그것으로써 박선생은 만족하다고 생각”(750쪽)하면서, 아내에게 “오십평생을 고생사리루 지냈는데 조금 더”(751쪽) 참기를 부탁한다. 박선생은 가까운 미래 즉 통일정부가 들어설 때 자신의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선생의 희망은 철저히 붕괴되고 만다.

남편몰래 서점으로 돌아다니며 팔으려 했으나 서점 에서는 눈도 떠보지 않았다. / 첫째 자기 남편이 한글학자로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출판하자면 출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것 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는 원인이었다.(751-752쪽)

박선생은 빈한과 곤궁으로 일관된 자기 일생이 너무나 허무했고 자기 사업이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생각이 어렴풋이 의식되면서 꿈속으로 들어가는듯한 혼동한 죽임의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754쪽)

박선생은 슬며시 오늘밤 자기 안해가 자기의 값나가지 않는다는 원고 몽텅이를 팔어버린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754쪽)

지식인의 몰락은 다음 두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은 현 세계의 성격 확인이다. 아내는 박선생의 한글 연구 원고를 출판하여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오랫동안 고수해온 지식인의 신념을 물질적 이익으로 보상받으려는 행위로, 해방기가 두 요소의 조화·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시험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 세계의 성격은, 출판사가 박선생의 원고를 출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첫 인용문에서 드러난다. 박선생의 낮은 지명도와 막대한 출판 비용이 출판 거부 이유이다. <敗北아인敗北>에 따르면, 일제 시대에 지식인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을 거부해야 했다. S는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가적지위”(576쪽)를 소멸시켰다. 즉, 자발적 소멸은 신념·자의식 유지의 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조건이었던 셈이다. 박선생 또한 “세상에 드러난 유명한 학자가 되기를 싫어했”(748쪽)다. 그러나 자발적 소멸로 인한 낮은 지명도는 해방기에 보상

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뿐이다. 출판사가 출판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 즉 막대한 출판 비용은 현 세계가 지향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출판사가 박선생의 원고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경제성이다. 출판사는 박선생의 원고가 지닌 학문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출판 거부의 첫 번째 이유인 낮은 지명도 또한 경제적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박선생의 원고를 대하는 출판사의 태도로 볼 때, 해방기는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신념과 물질적 안정이라는 두 요소가 조화되지 못한 시대, 후자가 극단적으로 팽배한 시대이다.

지식인 몰락을 향한 두 번째 과정은 타자에 의한 신념 폐기다. 아내는 지식인의 신념이 물질적 보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쏟살같이 거리로 나와 휴지장수를 불러다가 원고몽텅이를 저울에 다라몽땅 팔어”(752쪽) 버린다. 아내는 박선생의 원고 즉, 지식인의 신념을 휴지로 규정하면서 강제 폐기한 것이다. 신념을 제거한 아내, 타자는 박선생에게 “그까짓것 다 잊어버리구 댄 직업” 즉 물질적 욕망을 권유한다.¹⁷⁾

두 번째 인용문은, 아내가 원고를 제거하자 박선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부분이다. 자살은 실패로 끝나지만, 박선생은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지식인의 소멸과 신념의 몰락을 상징하고 자인한다. 마침내 박선생은, 세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지식인의 신념을 제거한 아내에게 동의하는 태도를 취한다. 결국, 현 세계의 성격 확인→타자에 의한 신념의 폐기→지식인

17) <봄오기前>의 아내가 <길>, <아버지消息>의 아내와 상반된 성격을 지니게 된 이유는, 남편의 존재 때문이다. 희망을 미래로 연기할 수 있었던 일제시대의 두 소설에서는 남편(지식인)의 부재로 말미암아 아내가 지식인의 의지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했지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던 해방기에는 남편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봄오기前>의 아내는 해방기는 지식인의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간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봄오기前>은 아내의 자살로 종결되는데, 아내의 자살은 지식인의 완전한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의 동의라는 과정은, 지식인의 항복 선언에 해당한다. 지식인의 완전한 몰락을 선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봄오기前>이라는 제목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해방기는 지식인의 신념이 인정받거나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V. 결론

본고는, 엄홍섭의 지식인 소설 중 일제 말과 해방기에 발표된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당대 세계와 지식인의 관계, 그리고 지식인과 주변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말과 해방기에 발표된 작품 모두 지식인의 소멸을 그리고 있다. <길>과 <아버지消息>은, 남편 혹은 아버지가 죽었거나 실종된 상황을 통해, 현재는 지식인이 부재하는 시대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작가가 작품 발표를 거부하는 모습, 자신의 작품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작품과 신념에 의한 작품으로 구분하는 모습을 통해, 지식인의 자발적 소멸을 암시한다. <自尊心>과 <봄오기前>은, <敗北아인敗北>의 인물 구조와 서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타인과 외부 세계가 지식인의 신념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하고 지식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지식인의 소멸 현상을 다룬다.

둘째, 지식인 소멸의 근본 원인은 지식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폭력에 있다.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지식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의 성격, 그리고 지식인과 세계의 불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식인이 추구하는 당위적 세계는, 지식인의 신념·자의식과 경제적 안락이 조화·균형을 이룬 세계이다. 그러나 세계는 두 요소가 분리되어 대립 관계를 이룬 상태이며, 지식인에게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를 강요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지식인은 소멸될 운명에 있다. <自尊心>과 <봄오기前>은 극도로 비대해진 경제적 안락의 문제가 지식인의 신념·자의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그리고 있다.

셋째, 지식인 소멸 현상과 소멸의 원인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일제 말의 작품과 해방기의 작품에서 상이한 대응 태도를 보인다. <길>과 <아버지消息>은 지식인의 부재에서 출발하지만, 사라진 과거의 지식인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주력한다. 작가는, 과거의 지식인을 미래의 지식인에게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어머니의 임무는, 미래의 지식인이 성장할 때까지 과거 지식인의 유물인 책을 보관하였다가 그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당위적 세계는 미래로 연기되며, 당위적 세계의 도래를 위해 현재는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敗北아인敗北>와 <조고만快感>은 현 세계의 폭력에 대한 지식인의 직접적인 반응을 그린다. 현 세계는 지식인의 신념과 경제적 안정을 분리·대립시킨 후, 후자의 우위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인은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자발적 소멸을 선택한다. 이처럼, 일제 말에 창작된 엄홍섭의 지식인 소설은 당대에 대한 전면적 거부 혹은 저항을 통해 비판적 지식인을 그리고 있다.

반면, 해방기의 작품들은, 지식인의 신념 후퇴 혹은 지식인의 완전한 몰락을 그리고 있다. 해방기의 지식인은, 자신의 신념과 경제적 안락 사이에서 내적 번민을 겪기도 하고, 세계가 경제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지식인의 신념을 폐기할 때 이에 동의하기도 한다. 이는 지식인의 행복 선언과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지식인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제 말의 작품→해방기 작품의 변화는, 신념 고수를 위한 지식인의 소멸, 그리고 지식인 복원을 위한 노력→지식인의 몰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당대에 대한 절망감의 차이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일제 말의 지식인은 당위적 세계를 미래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성격과는 상관없이, 미래는 당위적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기이고 연기는 희망의 지속을 뜻한다. 반면, 해방기는 일제 말의 지식인이 연기해 두었던 미래 그것이어서, 당위적 세계가 실현되는 시기여야 했다. 그러나, 엄홍섭에게 있어 해방기는,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신념과 이기적인 몰욕이 팽팽하게 대립된 시기,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시기였다. 이상적 세계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을 때, 해방기는 일제시대보다 더 절망적인 시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방기는 지식인의 신념과 경제적 안락이 조화·균형으로 이룬 시기로 가장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적 가장을 통해 이기적인 경제적 욕망은 더욱 안전하고 은밀하게 성취되기도 했다. 해방기 작품에 나타난 엄홍섭의 절망감은 이와 같은 시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제어 : 지식인, 신념, 몰욕, 대립, 연기, 계승, 소멸, 몰락

참고문헌

1. 자료

- 『韓國解禁文學全集』 7, 삼성출판사, 1988.
『韓國近代短篇小說大系』 15, 태학사, 1998.

2. 참고논저

- 구인환, 『韓國文學 그 樣相과 指標』, 삼영사, 1982, 163-165쪽.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4, 7쪽.
김기진, 「조선문학의 현재의 수준」, 『신동아』, 1934.1, 46쪽.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 작가」, 『연세어문학』 20,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70쪽.
김형봉, 「엄홍섭 소설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7쪽.
박선애, 「엄홍섭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1, 77-78쪽.
박선애, 「엄홍섭 장편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창간호,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4.8, 309쪽.
박진숙, 「엄홍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08쪽.
이봉범, 「엄홍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52쪽.
이호규, 「엄홍섭론」, 연세대 석사논문, 1991, 60쪽.
장명득, 「『군기(群旗)』사건과 엄홍섭의 초기 소설」,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8, 120쪽.
장미경, 「엄홍섭 소설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1993, 1쪽.
정하준, 「엄홍섭 소설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1995, 56쪽.
조남현, 「현대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3, 14쪽.

조명기·이재봉, 「엄홍섭 초기 지식인 소설 연구」, 『어문학』 92집, 어문학회, 2006쪽.

최경옥, 「엄홍섭 소설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9, 16쪽, 70쪽.

<Abstract>

The study of the disappearance aspect of
intellectual on the Um, Hung-Sub's short
novels

Cho, Myung-Ki · Lee, Jae-Bong

This paper makes Um's novels created on simultaneous strong point flag end, liberation flag with taxts. This paper tried to observe the present generation world and the relationship and an intellectual and a circumference humanity and justice change aspect of intellectual. The result with after words is same.

First, simultaneous end and disappearance of the work all intellectual which is announced in the liberation flag and it is. Second, intellectual disappearance being on the intellectual inside knows is to a power of explosion of outside world. The present world, the condition where the belief of intellectual and crisis - opposition of economic comfort make progress considerably is, the intellectual is not a possibility of having the existence base. Third, intellectual disappearance actual condition and disappearance reveals the confrontation attitude which differs from the work which is created in the work where even in the beginning of history box, the author is in spite of created on simultaneous end and the liberation flag. Um's the intellectual novels created on simultaneous end express the criticism intellectual thought the general refusal and resistance against the present generation. Belief withdrawal of intellectual or the ruin which

intellectual is complete and there are works which are announced in the other side and the liberation flag. When seeing from the viewpoint which is an intellectual disappearance, the work of simultaneous end change of the liberation flag work, it will be able to understand with ruin of the effort intellectual for the belief persistence and a disappearance and an intellectual demobilization of intellectual.

With this the cause of same change is visible with the fact that it is to difference of the despair feeling regarding at present generation. The intellectual of simultaneous end the sugar place world only it will not be able to perform at future. The abnormal world when compared to above it will not be able to perform, liberation only a quality possibility the simultaneous time which crawls compared to compared to it accepts at despair time and there is not.

Key Words : an intellectual, faith, a desire for material gain,
confrontation, succession, postponement, extinction, ruin